

##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국제이주 추이 고찰과 선교 전략 방향 탐색\*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논문초록

WTO의 출범과 지역무역협정(RTA)의 활성화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으며 노동력 이동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의 흐름은 사회문화와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선교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선교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공간적, 물질 및 인적 여건을 합리적으로 조합해야 한다. 먼저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급속한 활성화에 부합하는 기업의 선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화의 흐름과 연계시킬 때 인접 국가들에 대한 선교 활동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관·산·학·선의 협동 체제에 의한 패키지형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활동 주체로서 이주자의 이동을 활용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종합적으로 세계화의 3대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이동의 자유화를 활용한 선교 전략은 기존 선교 정책과 전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수단으로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세계화,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국제이주, 선교 전략

---

2008년 11월 20일 접수; 12월 12일 1차 수정; 12월 19일 2차 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 본 논문은 2008년 제25회 기독교문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토론 참여자들의 지적사항 및 논평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또한 세 분의 익명의 논평자들의 지적사항들도 수용하여 본문을 크게 보완하였음을 밝히며 감사드린다.

- I. 서론
- II. 국제무역의 추이 분석
- III.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분석
- IV. 국제이주의 세계적 동향과 경제적 특성
- V. 경제적 세계화를 고려한 선교전략의 방향
- VI. 결론

## I. 서론

1990년대부터 세계화(globalisation) 현상은 개인, 기업 및 국가의 활동 전반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 개인의 소비 성향과 소비 대상이 국내 또는 지역 차원에서 세계 차원으로 구조적 전환을 거듭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 유통, 판매 활동도 세계화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 익숙해졌다. 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한 다국적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이들 다국적 기업 내부의 국가 간 거래가 세계 전체 무역 거래규모의 40%를 능가할 정도이다. 금융과 자본의 세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외환시장에서 1일 거래 규모는 2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 규모의 자본이 하루 동안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다양한 통상 협상은 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화시키면서 시장 개방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개별 국가의 정책적 영향력은 약화되는 반면에 국가 간 상호협력과 경쟁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계화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이동, 나아가 사회 문화와 가치관의 동질화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세계화는 국가 간 총체적 상호 의존성의 심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통상 규범의 통일과 구속력 강화가 필요하였고, 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세계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흐름을 고찰하고 해외직접투자(FDI)에 의한 자본이동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이주의 특성을 연계하여 살펴보면서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의 이동 및 노동력 이동을 통합적으로 관찰하려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세계화의 3대 부문의 특징적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세계화의 흐름과 부합한 선교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략 수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국제무역의 추이 분석

### 1. 상품 무역의 규모와 비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2007년 세계 전체 상품 무역의 규모는 13조 6,19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수출 규모가 5조 7,722억 달러로 세계 총 수출 규모의 42.4%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27.9%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북미 3개국의 대외 수출 규모는 1조 8,535억 달러, 세계 전체에 대한 비중은 13.6%에 불과하여 수출 규모로는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전체 상품 수출량의 70%에 해당된다. 양 대륙에 국가 수가 많은 결과인 동시에 GDP 대비 무역 규모의 비중이 높은 결과이기도 하다.

수출 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시아, 북미, 중동 국가들의 지역 내 수출 비중이 약 절반 수준인 것에 비해 유럽 국가들의 경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통합의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역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세계화를 지향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부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유사한 소득

수준,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등의 여건들이 역내 무역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옛 소련 연방이었던 독립연합국가(CIS) 국가들의 수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수출 대상 국가들의 지역 내 편중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과 CIS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두드러진다. 역내 무역 규모보다 3~4배가 많은 수준이다.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가 역내 무역 규모의 3배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1〉 지역 간 상품 무역 규모와 비중(2007년)

(단위 : 10억 달러, %)

도착지 출발지	북미	중남미	유럽	독립국가 연합(CIS)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세계전체
세계 전체	2,517 (18.5)	451 (3.3)	5,956 (43.7)	397 (2.9)	355 (2.6)	483 (3.5)	3,294 (24.2)	13,619 (100.0)
북미	951.2 (7.0)	130.7 (1.0)	328.7 (2.4)	12.4 (0.1)	27.3 (0.2)	50.1 (0.4)	352.1 (2.6)	1,853.5 (13.6)
중남미	151.3 (1.1)	122.0 (0.9)	105.6 (0.8)	6.4 (0.0)	13.7 (0.1)	9.1 (0.1)	80.2 (0.6)	499.2 (3.7)
유럽	458.5 (3.4)	80.4 (0.6)	4,243.6 (31.2)	189.0 (1.4)	147.7 (1.1)	152.9 (1.1)	433.7 (3.2)	5,772.2 (42.4)
독립국가 연합(CIS)	23.6 (0.2)	6.3 (0.0)	287.5 (2.1)	103.2 (0.8)	6.9 (0.1)	16.2 (0.1)	59.6 (0.4)	510.3 (3.7)
아프리카	91.9 (0.7)	14.6 (0.1)	167.5 (1.2)	0.9 (0.0)	40.5 (0.2)	10.5 (0.1)	80.9 (0.6)	424.1 (3.1)
중동	83.9 (0.6)	4.4 (0.0)	108.3 (0.8)	4.8 (0.0)	27.5 (0.2)	93.4 (0.7)	397.3 (2.9)	759.9 (5.6)
아시아	756.4 (5.6)	92.3 (0.7)	714.6 (5.2)	79.8 (0.6)	91.4 (0.7)	150.4 (1.1)	1,889.8 (13.9)	3,799.7 (27.9)

주 : ( )안은 비중.

자료 : WTO, 2008에서 재구성.

## 2. 상품 무역의 흐름

국제무역을 지역 내 무역(intra-regional trade)과 지역 간 무역(inter-regional trade)으로 나누면 전자의 비중이 확연하게 크게 나타난다. <그림 1>에서 원의 크기는 지역 내 무역 규모를 나타내며 화살표 아래 숫자들은 지역 간 무역 규모와 비중을 표기한 것이다. 이를테면,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의 지역 내 무역 규모는 세계 전체에서 45.5%에 이르지만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간 무역량은 8.3%에 불과하다. 북미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간 무역 규모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 무역량은 지역 간 무역량에 비해 6.5배에 이른다. 이러한 양상은 첫째 인접한 국가들 간 무역이 지리적으로 먼 국가들 간 무역보다 활발한 것은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사회 경제체제의 상호 연계성과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인접 국가들 간 수월한 사회 문화적 교류가 소비성향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거래 관행의 호환성을 높이고 분업 및 교역을 활성화시키기에 기여한다. 둘째 특히 1990년대부터 지역경제 통합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5년 WTO의 출범으로 다자주의 통상 협상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의 교역 활성화와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효성이 취약하여 지역화와 쌍무간 협상에 대한 비중이 증대되어 왔다. 다자간 협상에서 선진국-개도국, 농산물 수출국-수입국 간 참여한 대립은 협상 기간을 지체시키고 실질적인 시장 개방 수준을 약화시키고 WTO 153개 회원국의 관심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sup>1)</sup>. 물론 FTA 플러스 개념을 적용하면 지역경제 통합 또는 쌍무적 FTA가 다자간 협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자주의적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상품 무역의 흐름은 지역 내에서

1) 2001년부터 추진해 온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만 7년이 넘는 실질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30일 결렬이 선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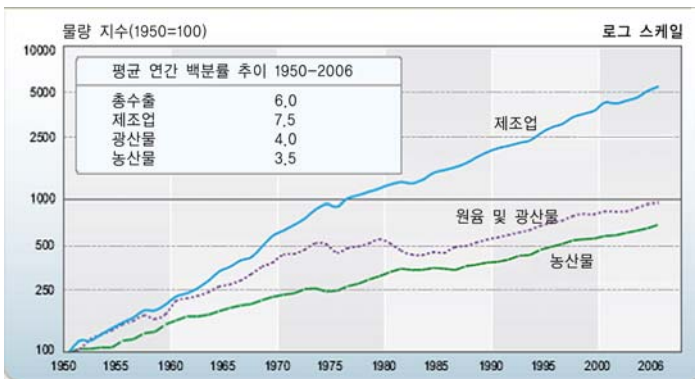




자료 : WTO(2007),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7.

〈그림 2〉 상품 무역량과 국내 총생산 증가율 추이(2000~2006)

1970년대 초와 1980대 초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전체 무역 규모의 감소세 또는 정체 양상을 경험한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무역 규모의 증가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WTO, 2007).



자료 : WTO(2008),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7.

〈그림 3〉 주요 상품 그룹별 무역 추이(1950~2006)

#### 4. 서비스 무역 추이

그리하여 2000년 대비 2006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규모는 약 1.9배 증대되었으며, 특히 서비스 무역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관광, 교육, 의료, 설계엔지니어링 등 대부분의 서비스 활동은 '사람'에 체화된 것이므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는 '사람'의 이동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상품 무역은 일회적일 수 있으나 서비스는 연속을 가지므로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자료 : WTO(2007),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7.

〈그림 4〉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추이(2000~2006)

### Ⅲ.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분석

2007년 세계 전체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는 1조 8,330억 달러 수준으로 1990년대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 고점이었던 2000년에 비해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UNCTAD, 2008, 〈그림 5〉 참조). 2007년 중반기



부터 시작된 경기 하강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FDI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세계 전체 FDI의 86%는 선진국에 의해 이행되고 있어 자본의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FDI의 유입국 기준으로 보면 총액의 68%에 이르는 1조 2,480억 달러 규모는 선진국에 유입됨으로써 선진국이 순 투자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순으로 투자 유치국이 되며, EU는 선진국 유입 총액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 유입 증가 속도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FDI 전체 규모에서 비중이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 유출되는 FDI 규모도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미약하지만 급증하고 있으며, 2007년 동유럽 및 CIS의 FDI 유출규모는 200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UNCTAD, 2008: 3).

다국적 기업 활동은 FDI의 증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선진국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비롯한 생산비용 절감 효과와 무역장벽 극복 효과를 추구하면서 생산설비를 개발도상국으로 이동시켜 왔다. FDI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2007년 중 신규 FDI 총액 가운데 30%는 다국적 기업 현지 법인의 수익률 증가의 결과였다(전게서). 물론 전통적인 무역이론<sup>2)</sup>에 따르면,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없다 하더라도 무역의 자유화가 실현되면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균등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는 노동력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있으므로 국제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킬 것이고 그러면 국내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저렴한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역으로 인건비가 비싼 국가에서는 점점 노동력을 절약하는 생산체제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므로 노동력 수요 감소로 인해 인건비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는 인건비가

2) 헉서-오린의 요소부존차이론에 의한 요소가격균등화정리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쌌던 국가에서는 인건비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가 균등화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자유 무역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한 논지이다. 자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상품이 교역재가 아니므로 자유 무역에 의한 생산요소 가격의 균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생산요소의 가격 차이와 현지 시장 진출 및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FDI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한 자본(생산설비)이동은 한편으로는 노동력 이동(국제이주)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FDI가 반드시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한 생산설비 이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 여건, 현지국 경제, 사회, 문화 여건, 생산 제품의 수명주기나 특성 등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후반 급증했던 선진국들의 FDI는 2001년 9.11 테러로 급감하였으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로 대표되는 신흥 거대경제권에 대한 FDI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동과 더불어 확대되어 왔으나 국가 리스크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FDI의 증가율은 상품무역 증가율보다 빠른 추세를 보인다. FDI는 거시적으로는 현지국의 국내 생산량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만 미시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접적인 설비투자에서 간접적인 경영 기술이나 지식 정보의 교환에 이르기까지 현지국에서 기업 활동 생산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영향력은 이중적이다. 현지국에서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의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고용 감소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sup>3)</sup>.

복합적인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FDI의 활성화가 무역거래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FDI를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

3) FDI와 무역 자유화 및 생산성 변화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최근 실증 연구로는 레스터·미로우도(Lester and Miroudot, 2008)를 참조하라.

한 자원들을 세계 곳곳에서 조달하고 역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단위:10억달러)



자료 : UNCTAD(2008: 3).

주 : 플로우(Flow) 변수 기준.

〈그림 5〉 해외직접투자(FDI) 추이: 총액과 경제수준별(1980~2007)

#### IV. 국제이주의 세계적 동향과 경제적 특성

OECD 통계에 의하면, 30개 회원국들에서 국내 인구에 대한 외국인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국적 취득에 의한 이민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95년 전체 인구의 9.3%였던 이민자 수가 2005년에는 12.9%로 증가하였고, 독일에서는 같은 기간에 11.5%에서 12.9%로, 영국에서는 6.9%에서 9.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비중이 가장 큰 호주의 경우에도 1995년 23.0%에서 2005년 23.8%로 증가하였다. 이민자 비중이 낮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모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 비중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1995년

0.2%에서 2005년 1.0%, 일본은 1.1%에서 1.6%로 절대적 수준은 낮으나 상대적으로는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OECD 2008: 25).

세계은행(World Bank 2006)에 따르면, 국제이주자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송금 총액은 2003년 723억 달러로 대외공적자금(ODA) 규모를 능가했으며, 2006년에는 2,76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5%는 개발도상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제이주자들의 경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국제이주자는 2000년 1억 7,600만 명에서 2005년 1억 9,1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오늘날 국제이주자는 국제적 이동의 수월성, 휴대전화 및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와 같이 모국과 고립되기 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국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이주자의 동향은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 추세와 병행하여 세계화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한다.

국제이주의 지역별 비중은 남(개발도상국)-북(선진국) 간 이동이 남-남 또는 북-북 간 이동보다 우세한 양상이다. 인도, 이란,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인접 국가들과의 국제이주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표 2〉와 〈표 3〉 참조).

국제이주 문제는 WTO 체제에서도 "노동 이슈"로 불리는 노동문제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근로조건이 차이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끼친다면 국제통상 규범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테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화, 국내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 근로시간의 차등화, 근로 기본권 보장의 차등화 등이 실질적으로 발생한다면 제도적 통상 규범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특정 상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한다면 근로조건에 의한 인건비 격차 즉 생산비용의 차이가 비교우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규범이 점차적으로 공정

〈표 2〉수입국 인구에 대한 인접국 이주자 수 비중

상위 15개 이주자 수입국	이주자 수(A)	수입국 전체 인구 대비(%)	인접국가로부터 이주자 수(B)	(B/A)의 비중(%)
미국	34,634,798	12.5	10,281,887	29.7
독일	9,143,244	11.2	957,016	10.5
프랑스	6,277,188	10.5	1,274,652	20.3
인도	6,270,659	0.6	5,822,700	92.9
캐나다	3,717,003	18.3	945,091	16.5
사우디아라비아	5,254,812	23.0	596,912	11.4
영국	4,865,541	8.2	537,885	11.1
파키스탄	4,242,691	3.0	724,233	17.1
호주	4,073,213	21.0	-	-
홍콩	2,703,491	37.7	2,193,425	81.1
코트디부와르	2,336,359	15.4	1,908,976	81.7
이란	2,321,453	3.6	2,298,835	99.0
스페인	2,172,201	5.5	530,358	24.4
이스라엘	1,978,103	31.1	34,882	1.8
요르단	1,945,210	39.0	218,582	11.2
전 체	93,935,966	5.0	28,325,434	30.2

자료 : Özden and Schiff ed.(2007: 34).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투입 요소와 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과 국제통상의 관심사는 국제이주 문제로 접목되어 있으며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무역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또는 국가 간 보편적 노동력 사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이주 문제는 세계화의 주요 관심사로서 고찰되어야 한다.

〈표 3〉 송출국 인구에 대한 인접국 이주자 수 비중

상위 15개 이주자 송출국	송출자 수 (A)	송출 본국 전체 인구 대비(%)	인접국가에 대한 송출자 수(B)	(B/A)의 비중(%)
멕시코	10,098,858	10.0	9,347,744	92.6
인도	8,958,956	0.9	1,646,792	18.4
방글라데시	6,638,008	5.0	3,807,203	57.4
중국	5,793,974	0.5	2,442,169	42.2
영국	4,193,174	7.1	248,527	5.9
독일	4,047,061	4.9	915,277	22.6
필리핀	3,405,471	4.3	-	-
파키스탄	3,386,516	2.4	1,360,069	40.2
이탈리아	3,283,208	5.7	704,628	21.5
터키	3,001,152	4.5	184,940	6.2
아프카니스탄	2,695,589	9.9	1,898,925	70.4
모로코	2,614,663	9.0	346,073	13.2
미국	2,269,220	0.8	620,712	27.4
이집트	2,248,937	3.5	216,555	9.6
알제리	2,085,260	6.7	100,668	4.8
전 체	64,720,056	1.9	23,840,282	36.8

자료 : Özden and Schiff ed.(2007: 34).

## V. 경제적 세계화를 고려한 선교 전략의 방향

본 절의 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경제적 세계화의 주요 동인들을 선교 전략과 연계시키려는 것이다. 즉 선교 정책과 전략의 수립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가운데 경제적 세계화 현상을 고려해 봄으로써 기존 선교 전략의 방향을 보완적으로 제안하려는 것이다. 경제적 세계화와 선교 전략과의 논리적 상관관계나 인과성을 입증해 온 학술적 탐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

한 논리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선교 방식과 방향성을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는 시도는 유익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 전략 수립의 구성요건을 재검토하고 기존 선교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경제적 세계화 양상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전략적 방향 설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선교 전략 수립의 구성요건

선교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공간적, 물적 및 인적 여건을 합리적으로 조합해야 한다.<sup>4)</sup> "선교 정책과 전략은 선교 현장이 다양해지고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선교 사역의 극대화를 위한 선교방향, 선교범위, 선교방법, 선교수단 그리고 선교도구 등을 말한다(박영환 2006: 31)." 즉 선교 정책과 전략의 기본적인 구도는 역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현지 여건과 선교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선교 현지의 문화적 관습적 충돌, 성급한 성과주의, 물질 중심주의, 강압적 전달 방식, 경험과 현지 정보화 실패 등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김상근, 2006).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독교 선교의 동기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박영환 2003: 25-27). 5세기에 이르기까지 초기 교회사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순수한 동기가 지배적이었으나 7~14세기에 이르는 중세기에는 교회의 정치적, 종교적 지배를 확대하려는 동인이 절대적

---

4) '선교(mission)'는 라틴어 어원 'mitto'(보낸다, 파견한다)에서 유래하여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아 보내지는 것을 의미한다(박영환 2003: 15-16 참조). 이 용어는 16세기 이냐티우스 드 로운라(Ignatius de Loyola)의 예수회에서 사용하였고 그 이후 선교사들이 보내지는 특정 목적지로 가는 것(going)과 그곳에서 사역하는 업무(task)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보편화되었다(J. A. B. Jongeneel 2005: 140).

이었다. 15~17세기 종교개혁 시기에는 경건한 생활을 통한 복음 사역의 회복이 관건이었고 18세기에는 모라비안 형제단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에 헌신적인 사역이 선교의 주안점이 되었다. 19세기에는 영국과 미국에서 복음주의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복음 전파의 열성이 확산되었으며, 20세기부터는 현대 과학의 영향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이 주요 선교 목적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선교 역사의 흐름은 본질적 동기와 상황적 동기에 의해 변화해 왔다. 닐리(Neely, 1995: 27-3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교적 종교로서 기독교는 상이한 문화권으로 전파되면서 적응, 토착화, 문화화 과정뿐만 아니라 상황화(contextualization) 과정을 경험해 왔다. 이를테면 기독교 복음은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문화 체계 내에서 전파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맥락에서 선교 전략은 세 가지 구성요건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시대적 환경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선교의 내용, 즉 복음이 신학적 토대에 올바르게 구축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의한 반작용(feedback)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변화의 역사적 의미와 추세적 특성을 분석하고 대내외적 파급 영향력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 현지의 대외적 환경 변화와 대내적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거나 그 흐름을 수용하거나 개혁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둘째, 선교 주체와 객체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선교의 목적 달성을 최대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복음 전달자와 수용자의 사적 만남 또는

---

5) 이러한 관점에서 닐리(Neely, 1995: 19)는 "복음은 비역사적인 것이 아니며, 비역사적인 것이 될 수도 없다. 만약 복음이 이해되고 적절히 수용되려면 특별한 역사적 상황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이 결코 비역사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비문화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역설하면서 중요한 사건이나 교단의 주요 활동 중심의 선교 역사를 보완하여 선교 사례 연구의 유효한 의미를 강조한다.



사회적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쌍무적 상호작용(bilateral interaction)이 어떠한 방식과 관계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선교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의 주체와 객체가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중요하며 '사람'의 이동과 관계 형성 구조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선교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환경의 변화 및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다면 선교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도 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선교 방식의 다양화는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다층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자는 이를테면 구제, 교육, 의료, 주거복지, 사회개발 프로그램 등 선교 활동 영역의 확대를 의미하며, 후자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사역자 양성, 교회 설립 운영 등을 위한 단계별 사역 활동의 심화를 지칭한다. 수평적 또는 수직적 다양화를 통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선교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교 전략에 대한 시사점

선교 전략의 구성요건으로 시대적 환경 변화, 선교 주체와 객체의 유기적 관계, 선교 방식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의 흐름이 이 요건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살펴보자. 세계화의 핵심적인 흐름을 대변하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은 경제적 환경 변화와 경제활동의 영향력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촉진시키고 있다.

먼저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상품,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이동의 자유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의 동질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와 경제주체들 간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은 세

계 시장에서 정보의 유통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국제이주는 단순한 인구 이동만이 아니라 국제경제 여건 변화와 무역 및 자본 이동의 변화와 연계되므로 자본주의 체제 변화를 고려한 국제이주자 선교 전략의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9세기에는 제국주의적 선교 전략이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되었고, 20세기에는 경제개발 지원과 병행한 선교 전략이 주효했는데, 이제 21세기에는 생산요소의 이동과 시장 개방에 따른 선교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유입된 이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활동과 연계시킨다면 단지 오지 또는 미개발지라는 이유만으로 선교 현장을 해외 먼 곳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국내에 자율적으로 유입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즉 외향적(outward) 선교에서 내향적(inward) 선교 방향 전환에 대한 통합적 전략을 고안해 내고 실천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문화를 고려한 국내외 이주자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차원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선교 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sup>6)</sup>.

국제이주자선교포럼은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에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일례로 이주자 선교전략을 탐색하고 있다(박찬식·정노화, 2008). 포럼은 이주자 선교를 통한 역파송의 신학적 토대를 정립하고 사회과학적 분석을 동원하면서 이주자 사역 사례를 다차원적으로 발굴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승구(2008)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들과 행인들"(벧전 2:11) 임에 착안하여 "주체로서의 이주자"와 "객체로서의 이주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론적 본질을 논증하면서 이주자 선교의 조직신학적 토대를 제시한다.

6) 국제 이주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이우성(2008: 213-214)을 참조하라.

### 3. 보완적인 선교 전략의 방향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국제이주의 추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선교 전략은 다섯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급속한 활성화에 부합하는 기업의 선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20세기 선교 활동은 선교사 개인과 선교 교단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제 세계화의 주도 조직인 기업이 선교사 개인과 교단의 활동을 보완함으로써 현지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 또는 수출입 기업을 활용한 선교 전략은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의 경우와는 구조적으로 구별된다. 후자는 일방주의적이고 지배적인 반면에 전자는 쌍방적이고 합의적이기 때문이다.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수평적 계약에 의한 민주주의적 기반에서 이뤄진다. 이를테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과 의사결정 방식은 1국 1주권에 의해 진행된다. 최혜국대우원칙(MFN)은 호혜적인 통상규범의 근간이 되므로 이에 근거한 기업 활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통상 장벽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선교 활동을 지원하기에 유효하다. 기업 활동 중심의 선교 전략은 직접적 방식과 간접적 방식을 포괄할 수 있다. 먼저 기독교 기업이 현지 거래 대상 업체 또는 현지인과의 직접적인 거래과정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생활관을 담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경험하고 습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교 목적을 현지 마케팅 홍보 행사나 사회봉사 기금 운영의 재무관리 방식과 구체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섬기는 노사문화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선교 목적의 본질이 자칫 자본주의적 속성과 혼란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라 선교사 및 선교단체와의 공조가 간접적으로 이뤄진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함정을 경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 활동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기업의 정보망

과 적응력을 활용하여 선교 활동의 현지 접근도와 친화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결국 이와 같이 기업 활동을 유효한 선교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지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체로서의 기반을 견고히 갖추어야 한다.

둘째, 세계화의 흐름과 연계시킬 때 인접 국가들에 대한 선교 활동의 활성화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지역 내 교역량은 지역 간 교역량보다 현저하게 많으며 지역 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지역 내 선교 활동의 비중 증대가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경제적 미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이 강조되어 왔으나 경제적 세계화와 사회문화적 침투력을 활용한다면 지역적 구도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선교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지라도 그 계획과 활동은 사람의 몫이므로(잠언 16:1), 최적의 환경을 활용하고 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주자 이동을 살펴해보더라도 인접국가들 간 이동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선교의 주체와 객체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보다 유효할 것이다.

셋째, 패키지형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저임금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현지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자본 투자 기업, 연구 담당 대학 또는 연구소, 선교 기관 등 관·산·학·선의 협동 체제를 구성해 볼 수 있다. 현지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외국 자본 유치,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연관 산업 발전이며, 자본 투자 기업은 저임금 생산체제와 원활한 현지화의 장점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해외직접투자 모델을 응용할 수 있다. 즉 기독교 이념의 정체성을 가지는 기업과 대학이 해외 산학 협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선교 기관을 동반하는 방식이다. 공식적이거나 조직적인 선교 기관이 아니라도 교회와 연합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소속 선교사를 참여시킬 수도 있다. 공식적인 종교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된 국가들을 제외한 현지 정부로서는 선교 기관 또는 선교사들의 사회봉사 활동의 콘텐츠를 기회비용의 지불 없이

무료로 활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갈등이나 마찰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독자적인 민간 선교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현지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투자 모델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기대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제활동 주체로서 이주자의 이동을 활용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국내에 유입된 산업연수생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의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합법적인 노동행위의 경우 2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이지만 개별 교회나 개인에게 산발적으로 위임된 선교 활동이 교육, 사회 적응 지원,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선교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선교사 해외 파송에 따른 기회비용과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국내 특화된 선교 센터의 운영이 가능하며 지속성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한다. 장기적으로는 선교 센터에서 근로자의 합법적 체류를 감독하고 보장할 수 있으며 노동력의 적정 공급과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 평가 시스템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이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식 교육 프로그램을 복음화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과외로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교회 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이를테면 이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재교육의 기회와 국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인의 해외 이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7) 실제로 건축 설계 사무소를 경영하는 한 장로 기업인이 서울 장한평에서 운영하는 몽골학교는 한국인 선교 간사, 몽골인 선교사, 크리스천 대학생 자원 봉사자를 조직하여 초·중고 몽골 학생들(2008년 현재 70여명 참석)에게 한국어, 영어, 수학을 무료 과외로 교육하면서 복음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몽골에 귀국한 600여명의 학생들은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매년 몽골에서 개최하는 하계 캠프의 핵심 참여자가 되어 복음화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주자의 자녀 또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들어 온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환경 적응화와 복음화 과정은 내향적 선교 전략의 지속가능한 유효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종합적으로 세계화의 3대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이동의 자유화를 활용한 선교 전략은 기존 선교 정책과 전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수단으로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교역국가들 간 사회문화적 변화와 동질화를 유발할 수 있고 자본의 이동이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듯이 복음화가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을 통해 문화 변혁과 경제 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복음화가 경제개발에 기여한 사례를 21세기 세계화 흐름에서 재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 VI. 결론

2005년 현재 한국이 파송한 개신교 선교사 수는 1만 4,086명으로 알려져 있다(박영환, 2006: 477). 한국에 개신교가 전파된 지 120여년 만에 이러한 해외 선교사 파송의 기록은 경이롭다. 세계 선교사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지만 전략적 사고로 숙고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도 있다. 세계 선교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선교 전략을 검토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役事)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소명의식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다.

WTO의 출범과 지역무역협정(RTA)의 활성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동과 노동력 이동을 확대시키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증가율은 국내총생산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 자본 이동을 대비하는 해외직접투자는 실물부문 교역량 증대와 비례하여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국적(초국적) 기업 활동과 자본 이동의 활성화는 한편으로는 국제 이주를 증대시

키는 요인이 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을 상쇄시키는 이중적 요인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나 자본 이동의 속도보다는 완만하지만 국제 이주자의 수는 점증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의 흐름은 사회문화와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선교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선교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공간적, 물적 및 인적 여건을 합리적으로 조합해야 한다. 먼저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급속한 활성화에 부합하는 기업의 선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화의 흐름과 연계시킬 때 인접국가들에 대한 선교 활동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관·산·학·선의 협동 체제에 의한 패키지형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활동 주체로서 이주자의 이동을 활용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종합적으로 세계화의 3대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이동의 자유화를 활용한 선교 전략은 기존 선교 정책과 전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수단으로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국제통상학의 관점에서 세계화의 특징적 흐름을 고려한 선교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통상 협상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MFN), 내국민대우원칙(NT), 상호주의 등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일치한다. 하지만 선교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문헌적 고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여 자칫 동떨어진 이질적인 주제를 인위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는 실증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나 선행 연구 결과물이 취약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본 논문의 구조적인 한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사회과학적 인식과 고찰을 통해 선교전략의 다양화, 효율화 및 합리화를 지향하는 노력에 기여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역할은 있다고 판단한다. 국제통상의 흐름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선교 전략의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다양한 방면의 전문

가들과 특히 목회자들과 사회과학 영역 전문가들과 폭 넓은 상호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선교활동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실물 교역, 자본 이동 및 국제이주의 세부 부문별 자료를 생산, 가공 및 분석하는 연구 작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4), 『하나님 나라와 이주 노동자 선교』,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편집부 엮음.
- 김상근 (2006), 『선교학의 구성요건과 인접 학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영환 (2006), 『선교정책과 전략』, 서울, 도서출판 바울.
- \_\_\_\_\_ (2003), 『핵심 선교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바울.
- 박찬식·정노화(편집) (2008),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 이승구 (2008), “이주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주자 신학의 토대로서의 이주자 이해,”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123-154
- 이우성 (2008),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주 현황과 기독교적 함의,”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182-214.
- Bauböck, Rainer(Ed.)(2006), *Migration and Citizenship : Legal Status, Righ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sterdam University Press.
- Byron, Margaret and Stéphanie Condon (2008),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Routledge.
- Jongeneel, Jan Arie Bastiaan (2005), 김경재 외 편집(), 『선교와 선교학』, 한들출판사.
- Lester, Molly and Sebastien Miroudot (2008), *FDI Spillovers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with Trade*, OECD Working Party of the trade



Committee, OECD.

Neely, Alan (1995), *Christian Mission : A Case Study Approach*, 옮김, 『사례 중심으로 본 선교 이해』, 쿰란출판사, 2005.

OECD (2008), *OECD Factbook 2008*, OECD.

Özden, Çağlar and Maurice Schiff eds.(2007), *International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 Policy*, The World Bank and Palgrave Macmillan.

Christopher, P., Ronald Skeldon, Terrie Walmsley and L. Alan Winters (2007), *Quantifying International Migration : A Database of Bilateral Migrant Stock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165, World Bank.

UNCTAD (2008),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World Bank (2006), *Global Development Finance*, World bank.

WTO (2008),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WTO.

\_\_\_\_ (2007),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7*, WTO.

유엔무역개발회의의 홈 페이지, <http://www.unctad.org/fdistatistics>

## Abstract

# A Proposal of Mission Strategies Considering the Flows of International Trade, FDI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ae hwang Kim(Myongji University)

The inauguration of WTO and the revitalis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RTA) are accelerating the globalisation. The capital market is open an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is growing more and more, as well as the commercial products and services trade is on the increasing trends. As the economic globalisation tends to change socio-culture, daily life styl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s, we have to consider its influence on the mission policy and strategies. In order to set up and Implement a more effective mission strategy, we have to make up by rational method the time and space constraints,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At first, we should build up commercial firms' missionary activities which correspond to the revitaliz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trade. Trying to connect the main tendency of globalisation to the mission, it's effective relatively to activate a mission model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It's necessary also to set up a package mission strategy based on a cooperation system of public organization-industry-university

or academy-mission organization. We need to reinforce the strategies making efficient use of the migrants as economic activity subject. In total, the mission strategy that uses the liberalization tendency of products and service, capital, labour force as key factors of the economic globalisation is not to replace current mission policy and strategies, but to complete a sustainable and flexible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changes.

**Key Words : Globalisation, International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ternational Migration, Mission Strategy**

